

사설

천태종 대북사업 환영하며

천태종이 11월 4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아 대북사업을 하는 종단은 조계종과 진각종 뿐이었다는 점에서 천태종은 꽤 거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종교단체의 대북사업은 기업체와 입장을 달리한다고 본다. 기업체가 이익을 추구한다면 종교단체는 민족의 화합이나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종교단체도 이익을 전제로 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불교계의 대북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기쁜 일임에 분명하다. 더 많은 단체들이 대북사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만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각 종단마다 특징적인 대북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중복되거나 단순히 퍼주고 자랑하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불교계는 황무지나 마찬가지이다. 남한 불교계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체계적인 승려양성, 효율성 있는 포교 대책, 불교문화의 동질성 회복,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의 실태조사와 복구, 불교적 신앙의 활성화 등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각 종단의 특성을 살리되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에 가장 대북사업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조정하고 연구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본다.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의 가치 바로 알아야

전통사찰은 우리 민족이 보유한 여러 문화유산 가운데에서 가장 복합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꼽힌다. 짧게는 반세기에서 길게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은 유형과 무형의 유산과 정신사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사찰은 불교계 해당 종단의 사유 재산이면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다. 재산권의 행사에 적지 않은 규제가 가해지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불교계의 정서는 바로 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평등한 공유가 우선이라는 대중적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역시 공동 유산에 대한 공동관리라는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해 못할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혁신 지방

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정비위원회가 전통사찰의 주요 시설물 보수 정비 사업비 지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처사일 것 같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통사찰의 보수 정비는 어떤 경우이든 그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에 따라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비 지원이 '특혜'로 비춰져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에 따른 문제도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국고보조금정비위원회의 이번 검토는 계약의 소지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이다.

교육불사 지원에 비중

조계종 내년예산

일반회계 165억...2.1% 증액, 종단 정체성 확립도

조계종의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165억5천3백만 원, 특별회계 179억2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11월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161회 정기중앙총회에서 2004년도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예산(일반회계)을 올해보다 2.1% 증액 편성했다.

이번에 확정된 일반회계 예산은 예년과 달리 종단 정체성 확립 및 교육 불사 지원에 비중을 둔 것이 특징이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종단 수행체계 정립을 위한 사업에 1억4천여만 원이 편성됐고, 도의국사, 보조국사, 보우국사 등 조

사설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종삼스님을 새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계종 종조와 증흥조의 다례제에도 3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 동국대에 총무원장 장학금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백상원(기숙사) 지원금도 각 2억 원 이상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다.

한편, 중앙총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무원의 법어사에 대한 문화재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및 선안사에 대한 주택공사의 토지 강제수용

과정에서 빚어진 재정 문제 등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사설사업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설사업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영담 스님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종삼 스님을 단장 임치로 새 위원으로 선출했다. 앞서 10일 열린 총회에서는 지

해·초우·진제·해정·고산·밀운 스님 등 6명의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행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인환·설정·현해 스님의 법계위원 위촉건도 이의 없이 통과됐다.

봉은사 조사 특별위원회, 종현·종법개정특별위원회, 종정감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특위를 해설했다.

봉은사조사특별위는 활동보고에서 "특위의 감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은 봉은사 주지 원해 스님을 호법부에 징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동국학원 법인사무처장

14일, 성국스님 승진발령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 정대 스님은 11월 14일, 장운 스님의 사퇴로 공석 중이던 법인사무처장에 부처장 성국 스님을 승진, 발령했다. 성국 스님은 다음 달에 있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권형진 기자

제1회 청소년燈公모전

12월12~18일 신청마야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제1회 청소년燈公모전-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등단들기'를 개최한다.

전국의 중·고등학생이면 모두 참가 가능하며 12월 12~18일 파라미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작품은 22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조계사에서 열리는 등 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02)723-6165 김은경 기자

"군종장교 여성에게 개방돼야"

이종인박사, 8개 군종제도 개선방안 제시

한국국방연구원 인력개발연구소 센터 이종인 박사는 10월 31일 '장병 종교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군종장교가 여성에게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국방부의뢰로 올 2월부터 실시했으며 종교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말경 국방부에 최종보고될 예정이다.

문건은 △군종 비전 정립 △군종의 본질적 기능 회복 △군종 교의 다원주의 확립 △신앙 전격화(定向) △군종장교 여성개방 △소수종단 군종장교 허용 기준 설정 △군종장교 신분전환 대안 △이단·사이버·외도 선별기초 설정 등 총 8개 항목의 군종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군종장교 여성개방에 대해 이 박사는 군종 고유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면서 우수자원 확보가 가능하고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 확대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군종 갈등해소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또 군종장교 여성개방 비율에 대해 사관학교 여성도 비율에 맞춰 최소 10%대(매년 5~6명 선)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종장교 소수종단 허용기준에 대해 이 박사는 종단현실 등을 감안 1만5천명 선이 적당하며 군종장교 신분전환과 관련, 현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행자교육원 새 입교연령지침 마련

만 41세 前日까지 허용키로

교육원(원장 무베은)은 11월 13일 '행자교육원 수확자적 중 연령 관련 변경지침 변경의 건'을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변경의 골자는 출가연령 상한선인 '만 40세'의 적용을, 행자교육원 입교일을 기준으로 '만 41세가 되기 전'까지로 한다는 내용. 기존 적용은 '만 40세 되는 당일의 연령의 해당하는 자'까지였다. 즉 입교일을 기준으로 만 40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날이나 지난날에 따라 입교 여부

를 따졌던 것을 만 41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입교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내년 9월 1일 개원 예정인 27기 행자교육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1964년 9월 1일 이후만 입교할 수 있었으나 세로 바뀐 지침에 따라 1963년 9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이면 입교가 가능하다.

교육원은 "올해 처음 실시한 권역별 행자교육과 함께 승가 교육체계 정비 차원에서 만 40세의 해석을 사회적 통념과 법률 적용에 맞춰 변경했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재가불자상 수상자 추천

재가연대 28일까지 접수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추천은 교계 주요단체 등의 추천, 홈페이지(www.buddha21.org)를 통한 인터넷 추천, 교계신문 기자단의 추천 등을 주요 통로로 하

고, 선정은 '2003년도 올해의 다양한 이슈들, 사회적 실천성, 재가불자들의 의식과 실행에 미칠 의미 있는 영향, 재가불자로서 정체성과 개척자적 성격 등을 중요하게 감안한다.

11월 28일까지 공개 추천을 받아 12월 13일 '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시상한다. 02)745-7799 남동우 기자

일류동국 도약위한 포럼

20일 덕암세미나실서

동국대는 건학 100주년 D-900일을 맞아 11월 20일 오후 2시 덕암세미나실에서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지금 동국대학교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일류동국 도약을 가모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고침

448호 2면에서 '세계불교청년포럼'은 2004년에 열리므로 제목과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31면 '계시판 엿보기' 중 '행인사수련동문회'를 '해인사수련동문회'로 바로잡습니다.

'연대' 민평 심민석

국제적 망신이 될수 있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임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 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울리는 대비주 기도도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com / 우리절.com /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